

DRESDNER PHILHARMONIE & KREUZ CHOR

드레스덴 필하모니 & 성 십자가 합창단

세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인류 예술의 걸작

바흐 <마태수난곡>의 완벽한 재현

Program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마태수난곡>
J.S. Bach <Matthäus Passion> BWV 244

지휘

로데리히 크라이레 | Roderich Kreile - 28대 칸토르



2007.3.4 (SUN) 2:30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7.3.2 (FRI) 7:00 pm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티켓 서울 VIP 20만원 | R 15만원 | S 10만원 | A 6만원 | B 3만원
패키지에매시 20% (VIP,R,S), 단체관람시 15~20% 할인 (문의 02-599-5743)
대전 R 15만원 | S 10만원 | A 7만원 | B 5만원 | C 2만원
예매 ticketlink 1588-7890 www.ticketlink.co.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빈체로 www.vincero.co.kr
문의 (주)빈체로 02-599-5743 www.vincero.co.kr

*미취학 아동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주최 (주)빈체로 협찬 후원 JW MARRIOTT. SEUL

드레스덴 필하모니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러(국립극장)와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1870년에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테르페('공경'이라는 뜻)오케스트라로 불리다가 1915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문 오케스트라답게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하였다.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 R 슈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지휘하였으며, 1934년부터는 파울 반 쾰렌, 카말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1945년 이후에는 루르트 마주어, 귄터 레르비히, 레르베르트 쾰렌, 미셀 클라우송 등 많은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인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2003-4년 시즌에는 가장 리카일 프리베 레 부르고스가 객원 지휘자로 있다가 2004-5 시즌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루르트 마주어 역시 드레스덴 필하모니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여 현재 개관지휘자(Laureate Conductor)로 칭송을 받고 있다. 음반은 주로 베를린 클래식(Berlin Classics)에 맡겼는데, 특히 레르베르트 쾰렌이 지휘한 베르테르 교향곡 진경, 파울 반 쾰렌 지휘, 빌헬름 쾰프 파이노의 모차르트 파이노 협주곡 20, 23(DG),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가 지휘하고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함께한 바흐 칸타타 등은 길이 빛나는 명반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공연장으로 유명한 글루어플라츠(문화공원)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
Dresdner Kreuzchor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의 소속 소년 합창단이다. 합창단 역사에 있어 황금기를 이루는 38세기에는 드레스덴 국립 극장의 공식 오케라 합창단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드레스덴의 아름다운 역사를 두 증강했던 1945년 2월 13-14일의 대공습에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도 예외가 아니어서 11명의 단원이 희생되고 학교와 교회 모두 파괴 되었으나 당시 합창단 지휘자로 있던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지되어 드레스덴이 편입된 동독사회의 억압속에서도 황금기를 구사하게 되었다. 마우어스베르거는 합창단원이었던 페터 슈라이어를 발굴, 일도 솔리스트로 기용하여 최고의 성가를 지루었고, 슈츠 바흐 등 작곡가의 종교음악을 녹음하여 지금까지 불후의 명반으로 평가 받고 있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동독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경적 걸림과 온갖 장애 속에서, 페터 슈라이어를 내세우며 드레스덴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전후에 개최한 수많은 리허설과 공연은, 목적으로 한지라 파괴된 무의 도시에서 합창단을 도약하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합창 속에 재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각이 합창단에 바치는 기어가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고 지휘자를 따왔던 소년들은 다른 합창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사운드로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었던 것이다. 슈라이어 외에도 현재 독일내에서 최고의 클래식인 앙상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빈츠바흐 소년 합창단을 창단한 한스 텃과 드레스덴 국립 극장의 주역 가수 테오 아담, 독일 가곡에서 탁월한 해석을 보이는 바리톤 가수 올라프 베어도 이 합창단의 소프라노 솔리스트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드레스덴 유적 페스티벌 감독이자 암스테르담 오페라 극장 지휘자인 하르부르 뢰벳도 1980년대 말 드레스덴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을 거쳐간 바 있다.

소년 합창단이나 다른 독일 소년 합창단들은 특성상 예쁘고 원상적인 음성을 구사하는 습관을 쓰지만, 드레스덴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은 힘 있는 10대 소년으로부터 무뎠한 독일인의 음성을 구사한다. 그래서 같은 조로 노래 불렀다 다른 합창단에 비해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노래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가끔 알토에 소프라노가 불리는 효과는 웅기그릇같이 귀약한 아름다움을 일깨우며, 무뎠하지만 깊은 태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소리를 듣는 게 가능한 건 이 알토의 힘이 크다. 고음이 강렬한 소년 합창에서 소프라노를 빼제하고 그런 합창을 만들어낸 긴장감 과감한 결단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이의 영혼 속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순수한 목소리를 지닌 것이 이 합창단의 최고의 매력인 것이다.

(지휘자 소개)

페터 슈라이어 | Peter Schreier (1935-)

세기의 테너에서 이제는 마에스트로의 길을 걷는 페터 슈라이어



금세기 최고의 미성을 가진 테너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 없이 페터 슈라이어(1935-)를 꼽는다. 구 동독 태생의 인물로서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테너인 슈라이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가 없었다면 헛나지 못했을 레퍼토리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높은 가량의 완성도를 가진 독일계 테너가 금세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에 그의 희소성은 더욱 가치를 발한다. 지난 40여 년간 오페라, 리트, 종교음악에서 발군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페터 슈라이어는 이제 직년을 마지막으로 가수 생활을 완전히 접었다. 한국에서도 역시 작년에 마지막 고별 콘서트를 열어 애호가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은 바 있다.

로데리히 크라이슬레 | Roderich Kreile (1953-)

성십자가 합창단의 제28대 칸토르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제28대 칸토르인 로데리히 크라이슬레는 뮌헨 출신으로 종교 음악과 합창을 전공했으며, 뮌헨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첫 합창 지휘자로 데뷔하였다. 1988년부터 90년까지는 뮌헨의 두지크호스슈레(음악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가르쳤고, 2개의 대학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큰 명성을 얻었다. 아울러 1994년에는 뮌헨 필하모니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세르지우 켈리비다제, 로빈 마틴, 게르트 할트베르트 등 거장들과 함께 하였다. 1997년부터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칸토르로 있으면서 현대 음악도 자주 초연하여 합창단의 레퍼토리를 넓히며 독일은 물론 해외의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며 합창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동을 두 배로 주는 감상 십계명

Ten Commandments

바흐 <마태수난곡>과 모차르트 <레퀴엠>은 교회음악이기 때문에 일반 클래식 공연과는 또 다른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공연을 보기 전과 공연을 보는 도중,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벅찬 감동을 영원히 간직해 보도록 하자.

- I 바흐 <마태수난곡>과 모차르트 <레퀴엠>은 가사가 들어있다.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동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연을 보기 전에 CD나 DVD를 통해서 미리 예습을 하는 것이 좋다. (주빈체로는 공연 전에 미리 보는 <마태수난곡, 레퀴엠> 공개 강좌를 2월 초에 진행 할 예정)
- II 공연장에서 요란하거나 튀는 복장은 금물이다. 추천하는 드레스 코드는 검정색과 흰색 정장이 좋겠다.
- III <마태수난곡>과 <레퀴엠>은 다른 공연들처럼 독립된 곡으로 연주되지 않고 한 파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연주하기 때문에 인터미션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 따라서 공연 30분 전까지는 공연장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입장하는 것이 좋다.
- IV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감동의 순간, 핸드폰 소리로 주위 관객의 좋은 시간을 망칠 수 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도 하지 말고 입장하기 전에 꺼버리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 V 미 취학 아동은 아쉽지만 공연장 규정 상 입장을 할 수 없다. 초등학생이라면 관람 예절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공연 예절은 중요하고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 VI 공연 중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과도한 몸짓으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연주에만 집중하도록 하자.
- VII <마태수난곡>과 <레퀴엠>은 앞서 말했듯이 음악 외에도 가사 전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공연에는 자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음악에 집중하면서도 가사를 음미하여 두 배의 감동을 즐기도록 하자.
- VIII 유럽에서는 <마태수난곡>이나 <레퀴엠>과 같은 종교음악이 끝나면 박수를 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주 있는 공연이 아니기에 연주자에 대한 찬사를 보낼 수는 있다. 그래서 교향곡이나 기타 다른 곡이 끝났을 때처럼 바로 '브라보'를 외치지 말고, 최소한 10초 정도의 여운을 남긴 뒤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좋겠다.
- IX 연주자들은 이 위대한 대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받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주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앙코르를 외치지 말자. 이는 연주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감동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X 공연에 대한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중요하다. 돌아가면서는 마음 속으로 이번 공연을 음미해보고, 나중에는 CD나 DVD로 감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을 느껴보면 비로소 이번 공연의 감동을 영원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감동의 완벽한 재현, 종교 음악의 최고봉 바흐 <마태수난곡>, 모차르트 <레퀴엠> 전곡 공연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과 더불어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이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내한 공연을 갖는다. 2005년 내한 시 단독으로 공연했던 것과는 달리 2004년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 &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같이 바흐의 <마태수난곡> 전곡을 연주했던 것처럼 드레스덴 필하모니와 동시에 내한하여 모차르트의 <레퀴엠>, 바흐 <마태수난곡> 전곡을 연주한다. 더욱이 이 합창단 출신의 세계 최고의 테너 페터 슈라이어가 직접 지휘를 맡아 <레퀴엠>을, 현재 제28대 칸토르인 크라이레(Roderich Kreile)는 <마태수난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주)빈체로에서는 공연에 앞서 공개 감상회 개최, 공연 시 자막 설치 등 관객들에게 보다 큰 감동을 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번 드레스덴 필 & 성 십자가 합창단 내한공연은 종교음악의 틀에서 벗어나 인류 예술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 받는 <마태수난곡>과 <레퀴엠>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마태수난곡> J.S. Bach Matthäus Passion BWV 244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최고로 위대한 음악

바흐 르네상스는 펠릭스 멘델스존이 1829년 3월 11일 베를린에서 <마태수난곡>을 재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언론은 이 작품을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최고로 위대한 음악,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성스러운 음악이라고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들뜬 찬사를 벗어나 생각해 보아도, <마태수난곡>은 이 토마스 교회 칸토르의 작품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두 개의 합창단을 위한 이 곡은 연주자들에게 전례 없는 능력을 요구하며, 그 복잡한 구조는 당시의 모든 형식과 내용을 집대성한 인상적인 것이다. 라틴어 통상문을 사용한 바흐의 <B단조 미사>에는 레치타티보가 없다. 똑같은 종류의 것이지만 그와 동시대 작곡가들의 오페라에는 다성 성악의 예를 찾기 힘들다. 또한 바흐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중요한 코랄의 작곡이 <요한수난곡>에서는 계속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에 <마태수난곡>에서는 당시 성악의 모든 형식과 양식이 제시되며, 특히 라이프치히에 재임할 당시에는 피했던 것으로 알려진 세속적인 요소까지 망라하고 있다.

<마태수난곡>의 가사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출처에서 뽑은 것이다. 신약 성서의 복음이 그 하나요, 아리아는 라이프치히의 법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하인리히(1700~1764, 피칸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에 의한 것이다. 그는 로슈토크의 신학 교수인 하인리히 뮐러(1631~1675)의 수난 설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바흐는 기본적인 감정을 종합하고 구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전통적인 코랄을 포함시켰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볼 때 작품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되는 설교의 앞뒤에 공연되도록 2부로 되어 있다. 1부는 프로렘(1번)으로 시작하고 2부에도 엑소디움(36번)이 있다. 프로렘에 이어 여섯 개의 장이 나오고 엑소디움도 아홉 개의 장이 잇따르며, 피칸더는 이를 각각 행적(actus)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극적인 면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고른 용어이다. 이런 일련의 행적은 코랄을 통해 더 짧은 장면으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듣는 이는 중세적인 골고타의 행렬의 전통과 더불어 십자가의 순례로 이끈다. 코랄의 기능은 작품에 구조적인 느낌을 더할 뿐만 아니라 응집력을 더한다. 즉 그것은 인류의 구원과 연결된 각각의 사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개개 사건의 연결 고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바흐는 '진심으로 바라옵시다'(Herzlich tut mir verlangen)의 멜로디를 다섯 번(21번, 23번, 53번, 63번, 72번) 사용하고, '사랑하는 예수님'(Herzliebster Jesu)은 세 번(3번, 25번, 55번), '오 세상이여, 나는 너를 떠나 보내야 한다'(O Welt, ich muss dich lassen)는 두 번 사용한다.

극의 진행과 나란히 <마태수난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조적이고 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대칭이 주는 느낌이다. 코랄 '내가 비록 전에 당신께 벗어났지만'(Bin ich gleich von dir gewichen)은 두 개의 복음 사이에 나와 형식적인 축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학적이고 목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의 핵심은 아리아 '사랑 때문에 주께서 죽음을 맞으셨네'(Aus Liebe will mein Heiland sterben)로 이 곡은 두 합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사는 모두 '십자가에 매다시오'(Lass ihn kreuzigen)이다. 주님의 사랑이 배푼 은총의 선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그 전례 찾을 수 없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은 이러한 가늠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답변이다.

Matthias Hengelbrock(번역: 정준호, 음악컬럼니스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칸타타 21번 <내 마음에는 근심이 많도다> J.S. Bach Cantata <Ich Hatte Viel Bekümmernis> BWV 21

J. S.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Bekümmernis (내 마음에는 근심이 많도다)"는 삼위 일체 주일 후 3주일에 해당하는 곡이다. 바흐는 생전에 300곡 이상의 칸타타를 작곡하였으나 이 중 200여 정도의 작품이 남아있다. 이 칸타타들 중에서도 21번은 특히 편성이 큰 편으로, 2부에 11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1714년 바이마르시기에 작곡되었으며, 당대에도 인기가 많아 1723년 라이프치히 시기에 개정되기도 했다.

영혼의 변민, 신에 대한 믿음의 권고, 약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 희생당한 어린 양의 찬양 등을 노래한 곡으로 이 중에서도 제3곡은 오보에 오블리가토 위에 펼쳐지는 죄인의 고해성사와도 같은 소프라노 아리아(Seufzer, Tränen, Kummer, Not; 탄식, 눈물, 근심, 고통)가 특히 아름답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많이 연주되고 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레퀴엠> W.A. Mozart <Requiem> K.626

레퀴엠이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으로 우리말로 진혼곡(鎮魂曲)이라고 한다. 많은 작곡가들이 레퀴엠을 작곡했지만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가 작곡한 가장 훌륭한 종교 음악일 뿐 아니라 레퀴엠 하면 모차르트의 그것을 떠올릴 정도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다. 모차르트를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의 장례식 장면을 통해 나왔던 '라 크리모사(눈물의 날)'로 더욱 친숙해진 레퀴엠은 영화에서처럼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리의 음모에 의해 의뢰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모차르트 생애 마지막 해인 1791년 여름 빈의 폰 발제크 슈트파흐 백작은 그 해 죽은 20세의 젊은 부인을 위해서 모차르트에게 레퀴엠을 의뢰했다고 한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의뢰자는 잿빛 복장의 미지의 사나이로부터 행해졌으므로 이미 병에 시달리고 있던 모차르트에게는 심한 환영 같은 충격을 심어 주었다. 모차르트는 1791년 여름에 두 개의 마지막 오페라와 클라리넷 협주곡 등 많은 곡에 착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를 받고 곧 작곡에 착수하지는 못했으며 곡의 작곡은 죽기 직전까지 지속되었고 결국 그의 죽음으로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모차르트에 의해 완성된 부분은 Introitus 전체, Kyrie의 대부분, Sequentia와 Offertorium의 성악 파트와 저음 파트 그리고 중요한 악기의 선율뿐이었다. 특히 Sequentia의 끝 곡인 Lacrimosa는 8째 마디까지만 작곡되어 있었다. 모차르트 사후 부인 콘스탄체는 곡에 대한 사례비 때문에 처음에는 제자 아이블러에게 보필을 의뢰하였지만, 그는 조금 손댄 뒤 그만 두었고, 그 후 여러 작곡가들에게 의뢰를 하였지만, 결국 또 다른 제자인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가 맡게 되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모차르트와 함께 있었으며, 이 곡의 마지막 작곡 방향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쥐스마이어가 완성시킨 레퀴엠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악보이긴 하지만, 그 후 다양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현재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 영국의 벤자민 브리튼, 리차드 마운더 그리고 독일의 프란츠 바이어의 작업들이다. 그 중 바이어 판은 최근 쥐스마이어 판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2006년 아르농쿠르의 내한 공연에서도 바이어 판이 연주되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의 초기 미사곡들과 비교 시, 조금은 우울한 듯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다소 어두운 색채를 띠지만 전체적인 일관된 선명한 화음 속에 모차르트의 대단한 감수성이 스며져 있다. 때로는 대단한 힘으로, 또는 극적인 효과로 절정에 이르기도 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함이 넘쳐 흐르기도 한다.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 I. INTROITUS [입당송]: Requiem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II. KYRIE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 III. SEQUENTIA [연속된 노래들]: Dies irae (진노의 날), Tuba mirum (놀라운 나팔소리), Rex tremendae (두려우신 왕), Recordare (기억해 주소서), Confutatis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Lacrimosa (눈물의 날)
- IV. OFFERTORIUM [봉헌미사]: Domine Jesu Christe (주 예수 그리스도), Hostias (주께 바칩니다)
- V. SANCTUS (거룩하시다)
- VI. BENEDICTUS (주께 축복있으라)
- VII. AGNUS DEI (하느님의 어린 양)
- VIII. COMMUNIO [제찬 봉령]: Lux aeterna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내리게 하소서)

DRESDNER PHILHARMONIE & KREUZ CHOR

드레스덴 필하모니 & 성 십자가 합창단

세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니
그리고 페터 슈라이어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최후의 대작 <레퀴엠>

Program

지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칸타타 21번
<내 마음에는 근심이 많도다>
J.S. Bach Cantata
<Ich Hatte Viel Bekümmernis> BWV 21

페터 슈라이어 | Peter Schreier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레퀴엠>
W.A. Mozart <Requiem> K.626



2007.3.3 (SAT) 8:00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VIP 20만원 | R 15만원 | S 10만원 | A 6만원 | B 3만원
패키지에매시 20% (VIP,R,S), 단체관람시 15~20% 할인 (문의 02-599-5743)

예매 ticketlink 1588-7890 www.ticketlink.co.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빈체로 www.vincero.co.kr

문의 (주)빈체로 02-599-5743 www.vincero.co.kr

*미취학 아동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주최 (주)빈체로

협찬 대한생명

후원 JW MARRIOTT. SEUL